

장병 독경대회 열려

임실 탄약창서



11월 9일 호국장영사 독경대회가 열렸다.

임실 탄약창(장장 방한석 대령)은 11월 9일 부대 내 호국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 포교사에서 장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단체부 6개 팀과 개인 21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장병들이 독경실력을 뽐낸 대회에서 제2경비중대와 제1탄약중대 권승호 일병이 각각 단체부와 개인부 우승을 차지해 4박5일 휴가증을 받았다. 동참한 불자 장병들에게는 108염주 세트, 호신불, 불서 등 선물이 전달됐다.

이성강 포교사는 "장병들의 독경실력에 감탄했다"며 "동안거 결제기간 중 부대내 수련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기마다 독경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통일쌀' 불전 공양... 개성서 전달

구례 화엄사 동안거 결제법회

운수남자들이 산중 사암에 행장을 풀고 웅맹정진에 돌입하는 무자년 동안거 입제일을 맞아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에서는 특별한 동안거 결제법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화엄종찰 화엄사(주지 종삼)는 11월 12일 동안거 결제를 맞아 '통일쌀 짓기 사업'에서 수확한 5000만원 상당의 쌀과 지역농민들의 수확물을 공양했다.

화엄사 스님들과 구례군 농민회, 기아차광주공장노동조합, 조선대총학생회 등은 지난 불부처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화엄사 소유 토지 2만평에 쌀농사를 지었다.

선원장 현산 스님은 법어에서 "결제에 들어가는 수행자들과 농민들이 진실된 즐거움을 찾는 길

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마음자리를 찾는 길"이라며 "이번 결제에서 마음자리의 진성을 깨닫는 시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구례군 농민회 정정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는 해보다 풍년이든 올해 '통일쌀 짓기 사업'을 통해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을 돕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확한 통일쌀은 화엄사 스님 10명과 농민회 45명, 기아차노동조합 20명, 조선대총학생회 5명 등 전체 80명이 함께 개성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농민회 한 관계자는 "통일쌀 짓기 사업"으로 화엄사와 지역농민들이 함께 친목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지역농민들은 17마 10만 원 당 7000원(7%) 쌀값 상승효과



11월 12일 구례 화엄사 동안거 결제식에는 '통일쌀 짓기 사업'으로 수확한 공양미가 올라 눈길을 끌었다.

를 얻었다"며 "앞으로 묘목재배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공에는 통일쌀 외에 구례군 농민회 산동면지회 김

양은 총무와 기아차노조 광주지회 등 '통일쌀 짓기 사업' 구성원들이 준비한 곡물, 과일 등 정성 담긴 공양물이 함께 올려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천천클럽 10년

창립행사서 장학금 전달

1000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들과 더불어 밝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가는 '전주 천천클럽'과 '전주 우리는선우' (회장 오종근, 호원대 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전주 천천클럽은 11월 9일 전주 관광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원형 스님(김제 금산사 주지), 도영 스님(조계종 전 포교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종근 회장은 "1000원은 작은 돈이지만 물 한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작은 정성이 모여 세상을 훈훈하게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영 스님은 축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이웃을 위해 노력해 온 임원진들과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여러분들의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희종(호원대 3학년) 등 7명에게 장학금 30만원씩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풍경 렌즈에 담기

선운사에서 사진촬영대회

가을단풍이 절정을 이룬 산사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사진촬영대회가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1월 8일 선운사 경내에서 제2회 '고창 선운사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읍지부와 전북협회 주관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포토클럽이 후원한 사진촬영대회에는 전국 1300여 사진동호인들이 참가했다.

동호인들은 바람 따라 흔들리는 단풍을 비롯해 선운사 배경의 동자승과 스님 20여 명이 모델로 나서 천년바라춤과 영산작법, 선비춤, 부채춤, 화관무, 승무, 살풀이 등 다양한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법만 스님은 축사에서 "사진은 보이는 것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찾기도 하고, 보이는 것을 다각도로 해석하기도 한다"며 "현상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훌륭한 예술작품을 보여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촬영된 사진은 금·은·동상, 가작, 입선작 등으로 연말에 전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음악으로 자비 나누어요"

광주 지장암 청소년가장 위한 산사음악회 개최



11월 8일 광주 지장암 경내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현장.

차가운 가을만큼 싸늘한 경제 상황으로 온정의 손길조차 뜸한 때 광주지회 사찰 및 선원단체가 어린 불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해 훈훈한 마음으로 화사되고 있다.

광주 지장암(주지 서경)은 11월 8일 지장암 앞마당에 특설무대를 마련해 청소년가장에 꿈과 희망을 주는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부산 용궁사 정암 스님, 인천 부루나 포교원 선일 스님, 송광군 북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청소년가장들과 복지단체 관계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에 이은 산사음악회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탤런트 윤용덕씨의 오카리나 연주, 이보영씨의 시낭송, 판소리 사설가, 태평무, 무상 스님의 팔송, 보공 스님의 아코디언, 주지 서경 스님의 하모니카 연주로 진행됐다.

서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음악은 우리 삶을 정화하고 풍요롭게 하며 인종과 문화, 종교 초월한 세계의 공

통언어다. 이 음악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사랑과 감동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전액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통해 지역 청소년가장들에게 전달된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도 11월 11일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환우 이웅빈(9·이동면(7군, 박진시(39)씨)에게 각각 치료비 200만

원, 300만원, 500만원과 헌혈증서 1000매를 전달했다.

전달된 치료비는 10월 22일 광주 생명나눔 창립 10주년 기념 난치성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금됐다.

한편 전달식에는 환우가족들을 포함한 현지 스님, 명신 스님(연화사), 도제 스님(원각사), 지각 스님(동원사), 범희승 병원장(화순 전남대병원) 등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광주광역시청 불자회 김상호 회장

"생각·형식서 자유로운 불교가 좋아"

광주광역시청(이하 광주시청)은 140만 광주시민의 살림을 맡는 곳이다. 광주시청 불자모임(이하 시청불자회) 김상호 회장(사진)을 만났다.

김 회장은 광주시에서 문화수도정책관을 맡고 있다. 광주를 새로운 문화도시로 일신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실무자이기도 하다.

광주시청에는 시청사 내 종교 단체를 포함해 20여 동호회가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시청불자회는 회원 100여 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청불자회는 2003년 12월 20일 천은 스님(향



가 좋은 이유를 들었다.

김상호 회장은 "다른 종교에 비해 편하다"며 "오랜 기간 타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나 불교만큼 생각과 형식에서 자유로운 종교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게서는 어디에도 구속받기 싫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대자유인의 모습이 엿보인다.

이런 김상호 회장의 성향은 "다른 종교에 비해 편하다"며 "오랜 기간 타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나 불교만큼 생각과 형식에서 자유로운 종교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게서는 어디에도 구속받기 싫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대자유인의 모습이 엿보인다.

김상호 회장은 "시청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간 교류에 중점을 둘 것"이라 말했다. "회원들의 바쁜 공무로 시간 맞춰 법회를 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김 회장은 올해 법회다운 법회를 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김상호 회장은 "연말 송년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해 아쉬움을 달래고 내년부터는 정기법회를 열 계획"이라 말했다.

김상호 회장은 이호준 회장에 이은 제2대 시청불자회장이자다. 첫눈에 봐도 누구라도 좋아할 호인으로 관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지혜로 행정업무를 수행해 호평이 자자하다. "불교입문은 10여 년 전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곡성 연화사에서 장모님 49재가 계기가 됐지요. 이후 자연스럽게 불교에 입문하게 됐고, 원화사, 정안사 등에서 수행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우연한 기회지만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해 김 회장에 불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듣고·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송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계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계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पाल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법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염송경집 1부·염송의법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단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법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 이해하기 쉽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일·한자 전자사전
※영어· 일어·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1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법 1부

